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제대로 된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루려면

군인과 무기
줄여요

미군을
집에 보내요

한반도
비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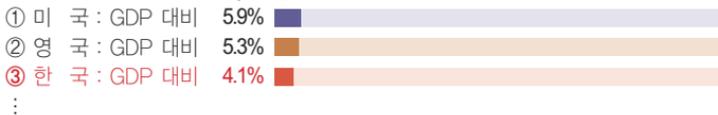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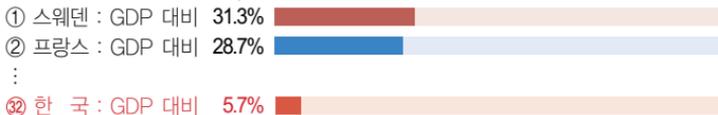
휴전(休戰) 56년, 한반도는 아직 전쟁중!

- ◆ 한국전쟁이 멈춘지 56년,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 **전쟁중!**
- ◆ 꽃게잡이 철만 되면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북 정권 제거를 노리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 ◆ 한국 전쟁 중에 유엔군 사령관이 가져간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지금도 **미군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 ◆ 지나친 군비경쟁으로 **국방비**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으로 지출하다 보니 교육·의료·주택 등 **복지 관련 지출은 쪼그라들**었습니다.

※ OECD 팩트북 2008, 국방비 등 질서유지 관련 지출비중 3위



※ OECD 팩트북 2008, 사회복지 관련 지출 OECD 국가중 꼴찌



※ 미국퍼주기 비용 (매년 5조 5천억원 꼴)

- 주한미군 지원 직·간접 비용 매년 2조원 이상 (방위비, 탄약관리비, 부동산 등)
- 미군재배치와 환경오염 치유비용 10조원 이상
-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 3조 5천억원 (2007년)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끝내자!

평화협정 정세의 도래

무력으로 북을 굴복시키려던 부시의 대북 압살정책은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 북의 강경한 대응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북미 양국의 힘겨루기

미국은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제재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북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2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가동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북미 양국의 대결은 격화될 것입니다.

대결 종식 절박한 미국과 북한

미국은 핵패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오바마 정권은 선거과정에서 2012년까지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북 또한,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설정하고 미국에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시켜야

한반도 비핵화, 미군철수와 동맹 폐기, 평화군축을 포함하는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은 전쟁을 치른 당사자가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끝내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군사조약으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국제법적으로 보장합니다.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전쟁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 북미간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북미, 남북이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법적인 약속을 합니다.
- 북핵 폐기와 함께 북에 대한 미국의 핵(선제) 공격 정책이 폐기되어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 북정권 제거를 노리는 공격적 작전계획과 전쟁연습이 사라집니다.
- 병력(2009년 현재 68만명)을 1/3 이하로 줄일 수 있고, 군 복무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젊은이들이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독일의 경우 8천 2백만 인구에 28만명의 병력)
- 전쟁위협이 사라지니 군비를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서해교전 때처럼
같은 민족의 젊은이들끼리
총을 겨누지 않아서 좋아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평화의 물결이 넘치겠죠.
야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관계가 평등해집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SOFA 등 불평등 조약과 협정이 폐기됩니다.
- 미군이 나가고 미군기지가 없어지며 한미동맹이 폐기됩니다.
- 미군기지와 훈련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비용부담, 환경오염, 범죄가 사라집니다.
-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군 파병을 안 해도 됩니다.
- 굴욕적인 한미FTA도 개폐되는 등 경제적 종속에서도 벗어납니다.

작전통제권 없는 나라가
이라크랑 우리나라
뿐이라며?

평화를 위협하는
MD, PSI 참여 안해도 되고
미군기지로 빼앗긴 농민땅도 찾을 수 있고
미군범죄나 환경오염도 없어지지.
또 미군에게 국민 혈세 안 퍼줘도 되고
작전통제권도 되찾아 오니
기 좀 펴고 살겠네.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노동자들이 살기 좋아집니다.

- 남북간 군비경쟁이 사라져 국방비를 1/2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미국 퍼주기 비용(매년 5조 5천억원)을 포함한 국방비(2009년 예산 28조 5천억원)를 1/2로 줄이면 14조 2천 6백억원의 예산이 확보됩니다.
- 이 예산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 노동자들의 살림살이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 비정규직(월급 1백만원) 50만명을 정규직(월급 2백만원)으로 전환하는데 6조원이면 가능!! (50만명×100만원×12개월 = 6조원)

아빠가
해고될 걱정없으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어.

그래 그래

태권도
배울래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대학생 등록금 걱정이 사라집니다.

- 등록금 1천만원 시대, 학자금 대출때문에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되는 기막힌 세상입니다. (ㅠ.ㅠ)
- 한해 등록금 총액은 12조원, 장학금을 제외하면 10조원
반값 등록금 실현하는데 5조원이면 가능!! (10조원÷2=5조원)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 이제 그만!!
대학 등록금 걱정없이
가고싶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요.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농민·빈민들이 살만해집니다.

- 비료값, 사료값 폭등에 농산물 가격은 폭락! 농민들이 죽어납니다.
- 농어가부채 총액이 약 48조 5천억원, 3조 5천억원의 이지만 면제 되어도 한시름 놓아요.
- 빈곤층 1백만 가구 건강보험료 (가구당 약 6만원)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 7천억원의 예산 확보 가능!! (1백만 가구×6만원×12개월 = 약 7천억원)



도시로 간 우리 아들
공장 잘 다녀 걱정없고,
공부하는 우리 딸
대학 등록금 걱정없고,
우리 할멈 병원비 걱정없으니
살 맛 난다!!
얼쭉~ ㄹ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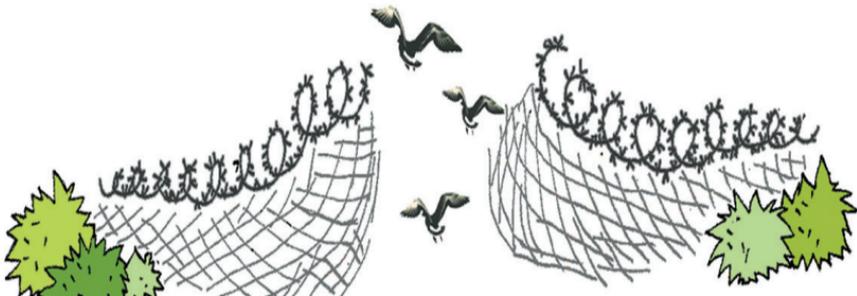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통일과 번영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한미동맹이 폐기되면,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 이행이 전면화 됩니다.
- 이에 따라 남북은 연합·연방 정부와 의회를 구성해 통일로 나아갑니다.
-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민족경제공동체가 구축되어 공동번영의 길이 열립니다. (2004년 한국은행은 개성공단사업의 3단계 완료 후에는 연간 생산 83조 8천억원, 부가가치 창출 24조 4천억원의 효과를 예상함)
- 남북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전면화되어 통신과 왕래가 자유로워집니다.



아! 아! 국민여러분!
 여기는 판문점 상공입니다.
 휴전선의 철조망이 걸히고
 수많은 인파와 물자가
 남으로 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협정 어때요?

- 여러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안)을 준비했습니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 속에서 미군을 내보낼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은?

- 한국전쟁 참전국이면서,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협정 당사자로 서명
- 하나의 민족으로서 한국(조선)인의 자주와 주권, 영토 보전, 통일의 권리 규정 (전문과 1장)
-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 및 협정 발효 후 3년 내 외국군 철수 (2장)
-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 청산과 국교 수립 및 불가침,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군 철수와 북핵 폐기 (3장)
- 남북 불가침과 경계선 규정, 군사동맹 해체와 관련 조약 폐기, 한반도 통일 (4장)
- 평화지대 설치 및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5장)

※ 한반도 평화협정(안) 전문과 해설자료는 평통사 누리집(peaceone.org) 평화군축자료실 2481번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기안자와 제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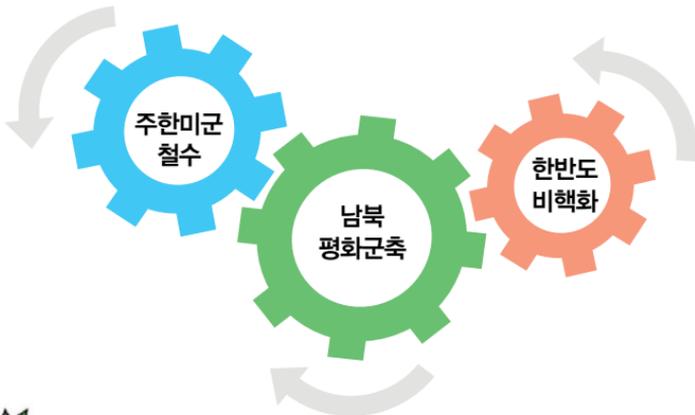


기안자 (가나다 순)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노정선(연세대 교수)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변연식(평통사 공동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재봉(원광대 교수) 이철기(동국대 교수) 장경욱(민변 미군문제위원회 위원장) 정상현(한미관계연구회) 조주형(평통사 지도위원, 공군F-15K시험평가단장 역임)

제안자 (가나다 순)

강남훈(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한신대 교수) 권정호(민변 변호사) 김귀옥(한성대 교수) 김상관(한신대 교수) 김세균(서울대 교수) 김승교(민변 변호사) 김준기 김진환(현대사연구소) 김한성(교수노조 위원장, 연세대 교수)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노중선(4월혁명회 대표)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박용일(민변 변호사) 배성인(한신대 교수) 설창일(민변 변호사) 심재환(민변 변호사) 이광철(민변 변호사) 이재정(민변 변호사) 이정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장연희(민변) 장창준(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조영선(민변 변호사) 조돈문(민교협 공동의장, 가톨릭대 교수)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최병모(전 민변 회장,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철영(대구대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황정화(민변 변호사) 고계츠 아츠시(일본, 야마구치대 교수) 한호석(미국, 통일학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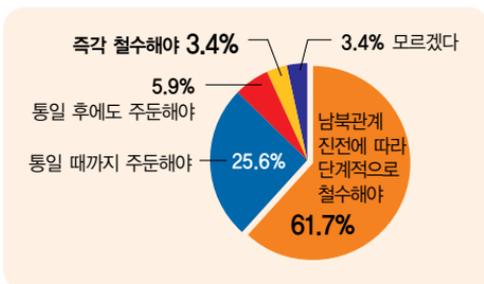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은 돌아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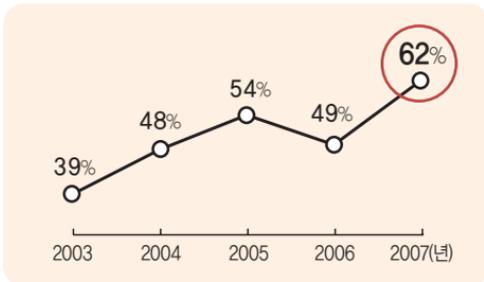
-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더 이상 외국군대가 우리 땅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 정전협정 4조 60항에도 모든 외국군 철수 문제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50년 넘게 전쟁 위협에 시달려 온 북도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미국 관리들도 한국민이 원하는때까지만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평통사의 질문에 대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 "주한미군은 한국 국민이 원하는 때까지만 있을것" (연합뉴스, 2008. 11. 26.)

우리 국민 60% 이상이 미군철수를 원합니다.

- 주한미군 철수는 언제?
(뉴스위크 한국판 2008.4.23)



- “전면 또는 단계적 주한미군 철수해야”
(중앙일보 여론조사 2007.9.22)



※ 따라서 7천만 겨레의 힘을 모으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평화협정 체결의 두가지 걸림돌

● 첫번째 걸림돌 : 침략적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영구화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한국인 혈세로 평택에 세계 최고 수준의 100년 가는 침략전쟁 기지를 만들어 언제든지 북한 등 적대국을 침략하려 하고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을 계속 틀어쥐고 공격적 작전계획과 전쟁연습을 강화하고 한국군 해외파병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를 통해 경제종속의 영구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주한미군과 침략적 한미동맹의 영구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 걸림돌 : 이명박 정권의 대북 대결 정책

민족의 평화와 통일보다 동맹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는 특하면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고, 북침 전쟁 연습을 수시로 벌여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군 파병, PSI 참여, MD 참여, 미제무기 도입 등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과 침략적 한미동맹에는 미국보다 더 나대며 북미관계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중대한 걸림돌입니다.



여러분이 나서 주세요

한반도는 그 어느때보다 평화협정 체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미당국의 의도대로 미군이 그대로 주둔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온 장본인이 미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나서야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가능합니다.
나로부터 먼저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나섭시다. 추진위원이 되어 주세요.

● 추진위원이 하는 일은?

모이재! 7월 26일!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으로



추진위원 서명 참가
서명 명단을 남·북·미·중 정부에 전달하고, 신문에 광고



주변에 서명참가 권하기



추진위원은 1만원 선언비 납부
• 국민은행 823701-04-164665 홍근수
• 농협 539-01-145822 문규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www.peaceone.org

주 소 _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47번지 2층
전 화 _ (02)711-7292 팩 스 _ (02)712-8445
카 페 _ http://cafe.daum.net/peaceagreement
전자우편 _ spark946@hanmail.net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추진위원 · 길잡이가 되어 주세요



하나 신문광고 등을 위한 평화협정 실현 운동 기금 1만원이상을 냅니다.

둘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기념하여 열리는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에 참석합니다.

셋 주변에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추진위원(1만원 납부자)과 길잡이(1천원 납부자)를 모읍니다.

| | |
|---------------|--|
| 이름 | <input type="checkbox"/> 추진위원 <input type="checkbox"/> 길잡이 |
| 전화번호 | |
| 소속 (단체 또는 직업) | |
| E-mail | |
| 주소 | |
| 하고싶은 말 | |

※ 서명 명단은 남·북·미·중 정부에 전달하고 신문에 광고로 냅니다.

년 월 일



Q. 미군이 나가면 국방비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A.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비는 북한의 610배입니다. 국방비 누계는 남한이 북한을 앞선 지 30년이 넘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의 비정상적인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이 사라져 남북 군인수를 30만 명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군이 나가면 미국 퍼주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나가면 국방비는 오히려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Q. 미군이 나가면 북이 남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A. 국방부도 『2006 국방백서』에서 “현재의 대북 전력은 양적으로는 열세하나 질적으로는 우세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듯이 미군 전력을 빼고도 남은 북보다 훨씬 우월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측 전력이 방어하는 측 전력보다 3배 이상 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북이 남을 공격하더라도 현재의 남한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은 6·15, 10·4공동선언에서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과 해주를 남쪽에 개방하기로 한데서 보듯이, 남을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북의 핵과 미사일은 남한 공격용이 아닌가요?

A. 북의 전술핵무기의 위력은 한국군 기지 한 곳을 파괴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미국방부 분석자료). 북의 미사일도 정확도가 떨어져 군사기지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북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일 뿐 남한 공격용이 아닙니다.

Q. 미군이 나가면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위협하지 않을까요?

A.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미국의 27개 동맹국 중에서 지상군 전력이 2위, 공군 전력이 8위, 해군 전력은 7위에 해당하는 군사 강국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대만에 비해서도 열세이며 1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자국 방어만도 벅찬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위협론이 득세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고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려는 기득권 세력 때문입니다.

일본이 군국주의화를 꾀하는 것이 중국보다 더 위험하기는 하지만,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일본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